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음력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음력설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음력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음력으로 쇠는 설. 음력 정월 초하루를 새해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음력설	음력설	음력설	음력설
음력설	음력설	음력설	음력설

음력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음력으로 쇠는 설. 음력 정월 초하루를 새해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음력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음력으로 쇠는 설. 음력 정월 초하루를 새해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 음력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음력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음력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음력설 사전 표기 요약	—	—	—	—	—	●→
陰曆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음력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음력설
19세기20세기
- 음력설

↳ 음력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음력설’은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음력설’로 나타나고 20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陰曆설’도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음력설’은 한자어 ‘陰曆’을 한글로 표기한 ‘음력’과 우리나라 명절 중 하나로 정월 초하룻날을 뜻하는 ‘설’이 결합한 것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설’은 15세기부터 ‘설’로 나타나기에, ‘음력설’은 근대 국어 시기에 ‘서’와 ‘셔’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 것이다. 20세기에 나타나는 ‘음력설’은 둘째 음절의 ‘ㄹ’이 ‘ㄴ’으로 바뀐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까지 ‘음력설’, ‘음력설’, ‘음력설’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음력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음력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음력설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음력설

출처 1899 제국신문 2월 25일 1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근일에 음력설이 지나고 덧업시 음력 망일이 될시.

㉮ 현대어 풀이

근일에 음력설이 지나고 덧없이 음력 망일이 되므로.

20세기 음력설, 음력설, 陰曆설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음력설, 음력설, 陰曆설, 음력설

출처 1922 동아일보 1월 19일 3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량력설을 지난 지가 이십 일도 못 되는데 음력설이 또 열흘밖에 아니 남았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3 조선일보 2월 12일

용례 03

66 문헌 용례

음력설도 압흐로 사흘밖에 격하지 안이하얏슴으로.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4 개벽 제45호 97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이번 陰曆설에는 상투쟁이 집에서 썩국을 아침저녁으로 어더 먹었는데.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음력설은 음력설대로 세찬을 하며 가난한 집 잘사는 집 할 것 없이 잇는 것을 다 드려 차리는
쌔이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음력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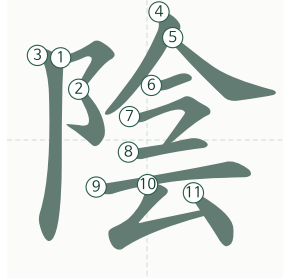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음력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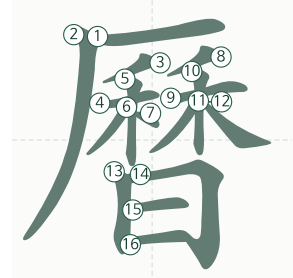
뜻·음 그늘 음
총 11획 · 부수 阜



hanja.wordrow.kr/한자/陰/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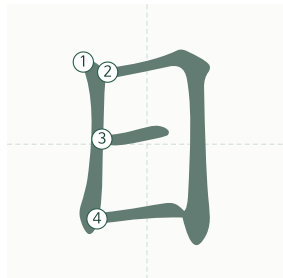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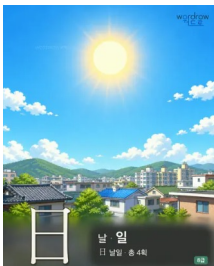
뜻·음 책력 력
총 16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曆/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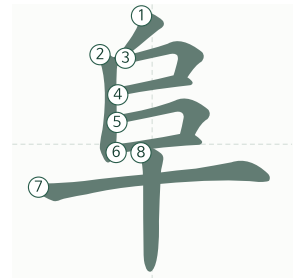
뜻·음 날 일
총 4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日/

阜

뜻·음 언덕 부
총 8획 · 부수 阜



hanja.wordrow.kr/한자/阜/